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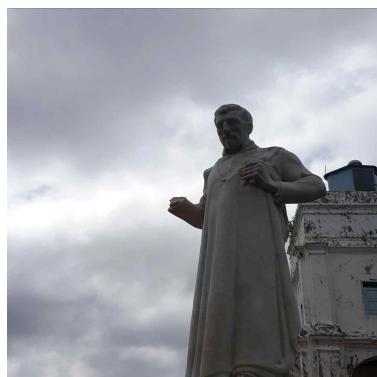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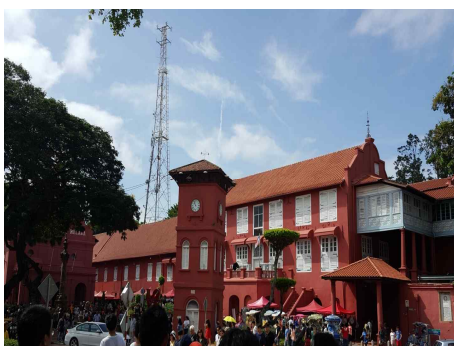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체험한 후, 나의 기억 속 말레이시아의 이미지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잘 어우러져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말레이시아는 헌법상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포교를 금지할 뿐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어서 종교마다 다른 모습의 사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인해 중국인과 인도인들의 이민이 많았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많아 중국 음식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비교적 잘 사는 국가로 정치적·문화적·경제적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한한 국가라고 느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첫 일정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도시인 말라카에서 **챙훈탱 사원**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챙훈탱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사원으로 1406년에 명나라의 정화 장군이 이 땅을 찾았고, 1646년에 정화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챙훈탱 사원의 입구에는 신기하게 생긴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의 입안에 있는 동그란 돌을 돌리며 행운을 빌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원 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 앞에서 향 혹은 가짜 돈을 태우면서 기도와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얼마 가지 않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 꼽히는 **캄풍 홀루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도착하였다. 캄풍 홀루 모스크의 삼각형 지붕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방의 모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특징으로 기억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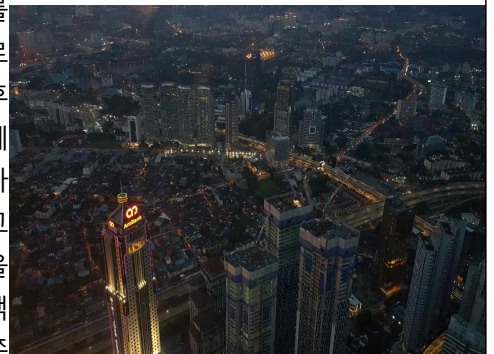
그 후에 말레이시아 식민지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네덜란드 광장**과 **세인트 폴 교회**에 갔다. 네덜란드 광장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시계탑과 크리스트 처치, 빅토리아 분수대가 있었는데 모두 아기자기한 느낌의 놀이동산을 연상케 했다. 네덜란드 광장을 지나 세인트 폴 교회로 가는 계단을 오르자마자 프란시스 사비에르 동상과 마주하였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동방에 가톨릭을 포교한 인물로, 중국에서 죽은 후 인도 고야로 이장되기 전에 세인트 폴 교회에 6개월간 안치되었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오른쪽 손목이 잘려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3가지 설들이 재미있었다. 먼저 사비에르를 존경하는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치고 잘라갔다는 것, 시신의 부패가 없어서 부패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교황청에 보냈다는 것, 나무에 잘렸다는 것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중에 가장 믿을만한 설은 시신의 부패가 없어 교황청에서 증거로 오른쪽 손목을 베어갔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세인트 폴 교회로 올라갔을 때 세인트 폴 언덕에서 보이는 말라카 해협의 경치는 올라가면서 느꼈던 무더위와 힘듦을 잊어버릴 만큼 아름다웠다.



말라카에서의 다음 일정은 **말라카 강 크루즈**를 타는 것이었다. 말라카 강을 지나면서 건축물들과 벽화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과 그림들이 말레이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을 지날 때 부는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고 여유를 만끽하며 본 풍경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말라카 강에는 악어보다는 작지만 꽤 큰 크기의 도마뱀들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도마뱀들과 흙색이지만 깨끗한 강, 나무들을 보며 말레이시아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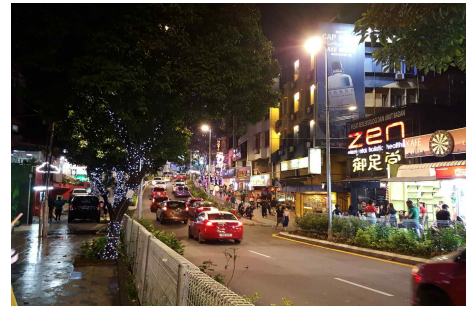


말라카 강 크루즈를 마지막 일정으로 말라카를 뒤로 한 채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를 이동한 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도착하였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건물 중 하나는 한국이,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중 한국이 건물을 먼저 건설하였다고 한다. 한쪽 건물은 관람과 백화점,마트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쪽



건물은 회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회사에서 지은 건물들이 많았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보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의 건물들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크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아주대학교의 자매대학인 **쿠알라룸푸르 국립대학**을 방문하였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규모에 놀랐다. 생각보다 커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교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를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배울 수 있었는데, 교수님의 열정적이고 참여를 요구하는 수업방식 덕분에 지루할 겨를 없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열성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욱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했다. 수업 후에는 쿠알라룸푸르 국립대학교 캠퍼스 투어와 식사를 하였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나서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대사관에서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전 총리인 나집 총리의 극심한 부패로 인해 1957년 독립 이후, 61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드라마, 음악 등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한국의 촛불집회가 말레이시아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사관에 이어 방문한 **코트라**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의 날을 맞아 말레이시아에서 취업한 2명의 멘토 분들에게서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와 이후의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멘토분들이 해외 취업의 장단점을 모두 알려주셔서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내가 중요시하는 것과 나의 비전 등을 고려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워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셋째 날의 일정은 코트라 방문을 마지막으로 자유여행의 시간이 주어져서 말레이시아의 야시장과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야시장에는 두리안, 망고와 같은 열대과일과 생과일주스, 바나나 튀김, 칠리 크랩 등 먹거리들이 풍부했고 기념품들과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고 마사지를 받아 가벼운 몸으로 숙소 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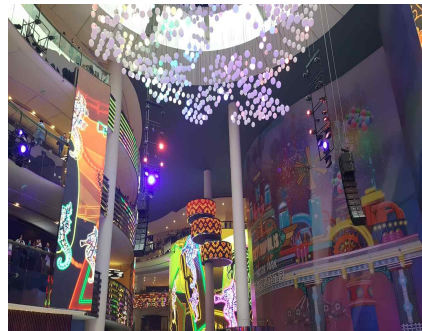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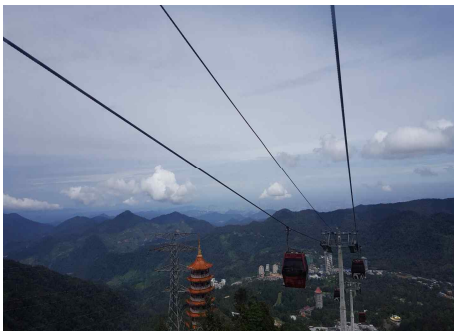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는 **쿠알라룸푸르의 인프라 사찰**이 이어졌는데, 실제 왕이 사는 **이슬람 사원 및 왕궁**에 방문하였다. 왕궁은 노란색과 금색, 하얀색 등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왕궁의 입구만 봐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여 막강한 왕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독립광장인 **메르데카 광장**을 방문했다. 메르데카 광장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광장 동쪽에 클럽하우스와 로열 셀랑고르 클럽이 실제로 현재에도 상위 1%의 상류층들의 사교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데카 광장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레이시아의 국기가 게양된 역사적인 장소인 동시에 현재는 나들이 떠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았다. 그 후 약 1시간가량 켄팅으로 이동하여 **켄팅 하일랜드**를 방문하였다. 켄팅 하일랜드로 가는 길은 케이블카로 이동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길은 신비로웠고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생각보다 높아서 바람이 불 때 무서웠다. 켄팅 하일랜드의 규모는 굉장히 컸고 그 안에는 먹을거리와 놀거리들이 많아서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었다. 켄팅 하일랜드에서



나와 마지막 관광지인 말레이시아의 힌두사원, **바투 동굴**에 갔다. 바투동굴은 힌두교 순례자들이 고행 순례를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사원의 입구에는 거대한 힌두신 상이 세워져 있었다. 중앙계단은 27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과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비는 것 같았다. 동굴을 오르는 계단에는 수많은 야생 원숭이들이



돌아다니는데 귀여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동굴의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동굴 안이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고 박쥐들도 보이지 않았다. 동굴 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어서 다음에 동굴에 다시 방문한다면 더욱 맛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경험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차이를 통해 한국의 장점, 단점 등 한국만의 특징이 더욱더 잘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음식은 이슬람 문화로 인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지 않아 물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었다. 항상 밥을 먹기 전에는 생선이 들어간 수프를 먹고 볶음밥과 생선 튀김, 치킨 맛이 나는 닭튀김 혹은 한국의 찜닭 맛을 연상케 하는 닭요리, 새우가 들어간 매운 국물 등 해산물과 닭을 활용한 음식들이 주로 나왔다. 그리고 물 대신 차가 나왔으며 후식으로는 과일을 먹었다. 말레이시아는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말레이시아인들은 시원한 여름, 더운 여름, 매우 더운 여름과 같이 날씨를 구별한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에 산다면 1년 내내 가벼운 옷차림과 우산, 우비를 항상 챙겨 다녀야 할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은 소나기가 내리고 그치기 때문이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말레이시아의 문화체험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앞으로 한국의 경제와 문화의 수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느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10개국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 등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고층 건물과 현재 정치에서까지 한국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배워나가길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비중이 커서 소비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경험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다른 것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국이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한국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공부해나가고 싶고 국제학부에 문화 체험이 있다면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경험에 시도하고 해냈을 때 성취감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도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국제학부에 감사드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해외 문화체험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번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은 24명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인원을 30명 정도로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의 비용을 학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일정 중에는 일정에 있는 장소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너무 일찍 도착해 시간이 남는 상황이 있었는데, 교통체증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더욱 균등한 시간 배분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국제학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무조건 신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화체험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끼리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갈 수 있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에 다른 과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매대학과 코트라, 대사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정치, 경제, 역사 등을 직접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에서 사업하기를 희망한다면 꼭 이러한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학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잡는다면 공부, 진로, 우정, 비용과 안전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시각을 넓혀나갈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